청양경찰서, 충남도립대 캠퍼스순찰대와 합동순찰

이용현 기자 | 승인 2025.05.23 13:13

'안전한 통학로, 안전한 청양 만들기' 적극 실천



▲청양경찰서와 충남도립대 경찰행정과 학생들이 지난 22일 합동 순찰 활동을 펼쳤다.

충남 청양경찰서(서장 이교동)는 지난 22일 이교동 경찰서장 등 경찰관 10명, 김형섭 충남도립대 교수·경찰행정학과 학생으로 구성된 캠퍼스 순찰대 50명과 함께 합동 순찰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.

총 60명이 참석한 이번 합동 순찰은 캠퍼스 주변 원룸촌, 백세공원 일대 등 범죄 취약시설을 점검하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범죄예방활동과 환경정화 활동을 동시에 펼쳤다.

이날 합동순찰은 충남도립대학교 정문부터 원룸 밀집지역, 여성안심 귀갓길 등 범죄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예방순찰을 통해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, 청양 군민이 많이 이용하는 백세공원 주변 쓰레기를 줍는 등 환경정화 활동을 펼침으로써 안전하고 깨끗한 청양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다.

이교동 경찰서장은 "경찰행정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캠퍼스 순찰대의 자발적인 순찰활동으로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안전한 청양 만들기에 일조하고 있다"며 "앞으로도 경찰과 각 기관·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공동체 치안활동을 활성화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청양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"고 말했다.

한편, 캠퍼스 순찰대는 4월 17일 발대식을 갖고 매주 오후 7~9시 조별 7~8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교 주변, 백세공원 일대를 순찰하며 범죄예방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.
/청양=이용현기자

이용현 기자 loh3691@naver.com

저작권자 ©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